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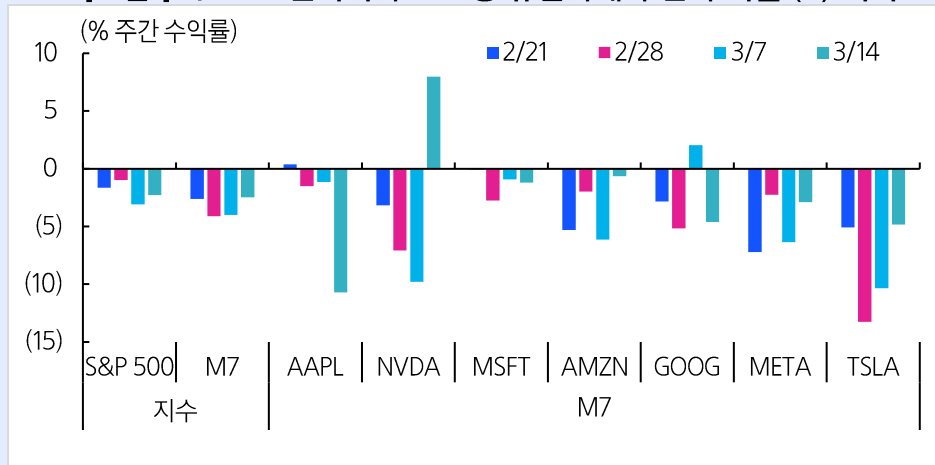
지금 **Hot한 종목**을 Kodex로 만나는 시간

삼성 Kodex ETFNow

01 | 이번주 HOT 종목 : 엔비디아

중국산 저비용 고성능 DeepSeek 출현 이후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형성된 게 엔비디아를 비롯한 M7에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 미국 AI 테마 대장주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 하락 전환하자 미국 증시 투자심리는 전반적으로 위축됐다(2024년: 171.2% vs. 2025년: -9.4%). 한편, 현지시간 17~21일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를 앞둔 기대로 **엔비디아는 지난주 M7 중 유일하게 강세 전환**에 성공했다[그림 1] (3/7~3/14 수익률: M7 -2.5%, 엔비디아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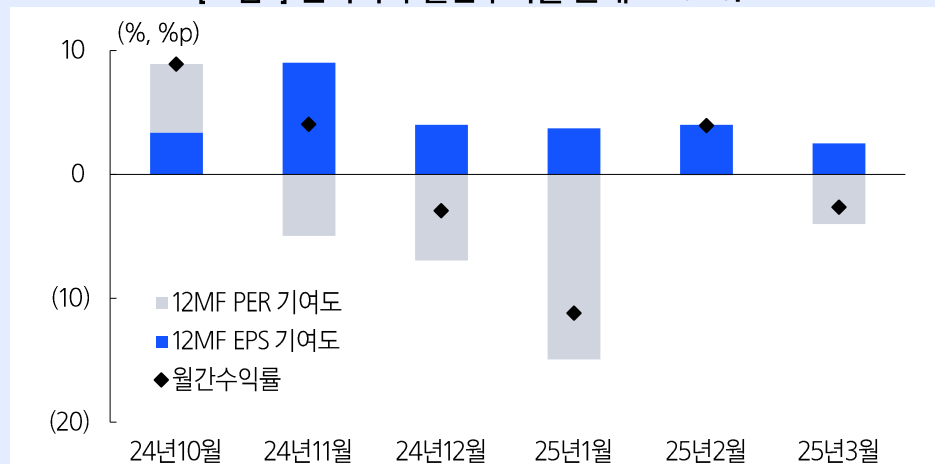
[그림1] 3/7~14 엔비디아: M7 중 유일하게 주간 수익률(+) 기록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기업의 주가 수익률은 크게 향후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EPS)과 일명 '꿈의 크기'라고 알려진 멀티플(PER)로 분해가 가능하다. 멀티플(PER)은 요구수익률인 시장금리(r)이 하락하거나 성장 기대감(g)가 높아질 때 상승한다. 엔비디아의 최근 6개월 월간 수익률을 분해해 보면, **이익은 전월비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2]. 이 말인즉, **성장 기대감(g)가 다시 커지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림2] 엔비디아 월간수익률 분해: EPS vs.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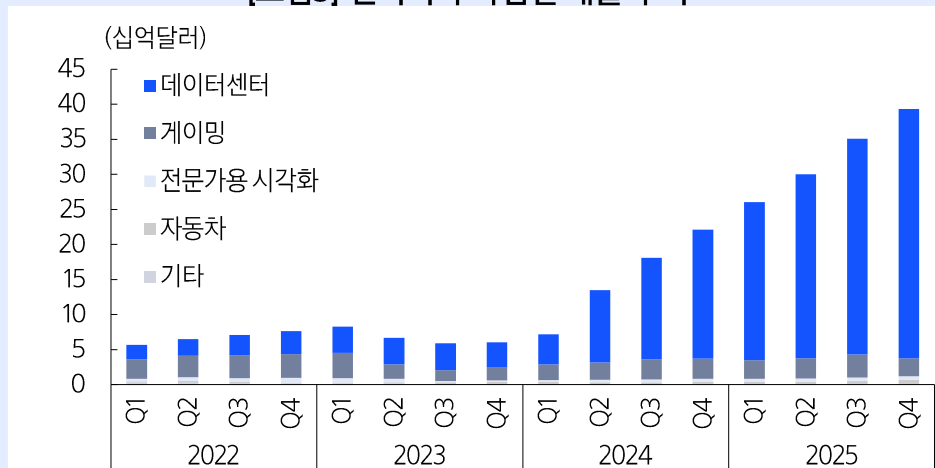


※ 주: 3월은 3/14일 기준.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02 | 왜 엔비디아인가? 고성능 칩 수요 증가는 필연적

엔비디아는 이번 GTC 2025에서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GPU ‘블랙웰 울트라(GB300)’와 후속 시리즈인 ‘루빈(Rubin)’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젯슨 토르(Jetson Thor)), 양자컴퓨팅(양자의 날(Quantum Day) 최초 진행) 등 다양한 차세대 기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GTC 2025에서 차세대 기술에 대한 비전 제시로 **AI산업 확장 기대감**이 유입된다면, 이는 곧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그림 3].

[그림3] 엔비디아 사업별 매출 추이



※ 주: 달러 연도 기준. ※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DeepSeek 출현 이후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면서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PER은 24.2배까지 하락했다**(2/7 기준)[그림 4]. 이는 최근 5년 래 가장 높았던 68배('21년 11월)의 반절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역사적 저평가 영역**이라는 평가다. **GTC 2025를 계기로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 기대감(g)이 다시 높아진다면,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을 재개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4] 엔비디아: 12개월 선행 PER vs. EPS



※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03| Nvidia를 가장 많이 담은 Kodex ETF는?



24.3%

491090

Kodex 미국테크1조달러기업포커스

글로벌 AI산업을 이끄는 Big3(MS, Apple, Nvidia)와 이들과 함께하는 밸류체인 7개사에 함께 투자하는 ETF

473460

Kodex 미국서학개미

서학개미 최애 25개 종목에 투자하며 월간으로 리밸런싱하는 스.마.트.한 ETF

20.7%

390390

Kodex 미국반도체

AI, 휴머노이드 등 기술 혁신의 필수 동반자 반도체, Nvidia를 필두로 미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ETF

18.5%

※ 자료: 2025년 3월 14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04| Kodex 미국반도체(390390) 알아보기!

✓ Kodex 미국반도체(390390) 투자포인트

- ✓ PC, 스마트폰을 넘어 AI, 로봇 등 혁신기술의 필수재, 미국 반도체
- ✓ 반도체 장비, 설계 등 미국상장 첨단 반도체 기업 전반 골고루 투자
- ✓ AI 시장 지배력을 이어가는 Nvidia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ETF


 삼성 Kodex ETF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탑픽 선정
이유

GTC2025(후속작 'Blackwell Ultra', '차세대 반도체(Rubin)' 등 발표 예정)에서 Nvidia의 AI반도체 시장 지위 & 지배력이 더욱 공고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 또한 AI를 넘어 로봇공학, 양자컴퓨팅 등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논의되며 반도체 시장 전반에 온기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 → Kodex 미국반도체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

📊 Kodex 미국반도체(390390) 보유 종목 TOP 5

구분	종목명	기업설명	보유비중
1	 NVIDIA (NVDA US Equity)	AI 가속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시장을 선도하는 GPU 및 AI 반도체 분야 절대 강자	18.5% ★
2	TSMC (TSM US Equity)	최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을 통해 시칩 생산을 주도하는 최대 파운드리 기업	12.3%
3	Broadcom (AVGO US Equity)	AI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며 주문형 반도체 분야 특징점을 가진 업체	9.3%
4	ASML (ASML US Equity)	극자외선(EUV) 노광 기술을 독점하는 AI 반도체 핵심 공정 기업	5.5%
5	Qualcomm (QCOM US Equity)	모바일 & 엣지 AI 프로세서 강자. AI 최적화 반도체 기술 보유 기업	4.8%

※ 자료: 2025년 3월 14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 합성총보수·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odex 미국테크1조달러기업포커스: 총보수 연 0.300% (운용 0.269%, AP 0.001%, 신탁 0.020%, 사무 0.010%),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Kodex 미국서학개미: 합성총보수 연 0.4071%, FY2024 기준 증권거래비용 0.6882% 발생,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 Kodex 미국반도체: 합성총보수 연 0.1752%, FY2024 기준 증권거래비용 0.1562% 발생,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료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